

고구려 지명 ‘혈구군(口郡)’의 ‘혈(穴)’에 대하여*

— 고구려어와 다른 알타이어와의 친족 관계를
중심으로 —

Im Hong-bin,
Seoul University

1. 서론

본고는 『삼국사기』 지리지에 나타난 고구려어 지명 가운데 여러 차례 그 해독이 시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해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혈구군(口郡)’의 ‘혈(穴)’에 대하여 그것을 나타내는 고구려어형이 어떻게 재구되어야 하는가를 분명히 하고, 그 고구려어형이 다른 알타이어형과는 어떻게 비교될 수 있는가를 검토하여 그것이 알타이어족 가설에 대하여 어떠한 함축을 가지는가에 대하여 필자로서 가능한 가설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삼국사기』 지리지에 남아 있는 지명 가운데 순수 고구려어를 적은 것으로 여겨지는 지명들은 어느 것이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마는, 특히 ‘혈구군(口郡)’은 그 어형의 특수성이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혈구군(口郡)’의 ‘혈(穴)’과 ‘구(口)’ 특히 ‘혈(穴)’은 고구려어 혹은 한국어의 계통 문제를 밝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원시한국어를 둘로 나누어, 부여 및 고구려어를 중심으로 하는 북방계 언어와 삼한의 언어를 중심으로 하는 남방계 언어가 어느 정도 차이를 가지는 것이었다고 할 때, ‘혈구군(口郡)’의 ‘혈(穴)’은 그것이 얼마나 다른 것인가를 볼 수 있는 핵심 어형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혈(穴)’의 의미를 가졌던 것으로 생각되는

‘갑비(口比)’가 중세어형과 완전히 동일한 어형을 보이는 것은 아니면서 중세어형의 선대형으로 볼 수 있는 어형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2. ‘혈구군 (口郡)’ 관련 기록

본고의 해독 대상이 되는 『삼국사기』 지리지의 관련 기록을 다음과 같이 보이기로 한다.

(1) 가. 口郡 一云 口比口次 [‘혈구군’은 ‘갑비고차’라고도 한다](『삼국사기』 권37-지6-지리4-03)

나. 穴城 本 口忽 [‘혈성’은 이전에 ‘갑홀’이었다](『삼국사기』 권37-지6-지리4-013)

다. 口郡 本 口口麗 口郡 在海中 口口王口名 今 口華縣 領縣三 [‘해구군’은 이전에 고구려의 ‘혈구군’으로, 바다 가운데 있으며, 경덕왕이 이름을 바꾼 것으로, 지금의 ‘강화현’이다. 거느리는 현이 셋이다](『삼국사기』 권35-지4-지리2-23)

라. 沘陰縣[沘陰縣/江陰縣] 本 高句麗 冬音奈縣 景德王改名在穴口島內 今 河陰縣 [‘자음현(호음현/강음현)’은 이전에 고구려의 ‘동음나현’이었는데, 경덕왕이 이름을 바꾸었다. ‘혈구도’ 안에 있으며, 지금은 ‘하음현’이다](『삼국사기』 권35-지4-지리2-24)

마. 冬十月 攻陷 百濟 關彌城 其城四面峭絕 海水環繞 王分軍七道 攻擊二十日 乃拔 [겨울 10월 백제의 ‘관미성(關彌城)’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그 성은 사면이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왕은 군사를 일곱 길로 나누어 20일을 공격하여 마침내 빼앗았다](『삼국사기』 권18, 고구려본기 6, 광개토왕, 원년)

(1가)는 ‘혈구군 (穴口郡)’이 ‘갑비고차(甲比古次)’라고도 불린다는 기록이다. ‘갑비(甲比)’는 ‘혈 (穴)’에 대응되고, ‘구 (口)’는 ‘고차(古次)’에 대응된다. (1나)는 ‘혈구군(穴口郡)’ 외에도 ‘혈성(穴城)’이 나타남을 보인 것이다. (1가)의 ‘갑비 (甲比)’와 달리, (1나)에서는 ‘갑 (甲)’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1다)는 고구려 때의 ‘혈구군’이 경덕왕 때에는 ‘해구군(海口郡)’으로 이름이 바뀌고 고려 때에는 ‘강화현 (江華縣)’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1라)에서는 ‘혈구군 (穴口郡)’의 다른 이름 ‘혈구도(穴口島)’와 만날 수 있다. ‘혈구군 (穴口郡)’이 행정적 지역 단위

명칭이라면, ‘혈구도(穴口島)’는 지리적 명칭이었음을 알 수 있다. (1마)는 ‘강화도’의 백제 때의 이름이 ‘관미성’이었음을 알려 준다.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기로 한다.

(2) ‘혈구군(穴口郡)’의 유래와 연혁

가. ‘혈구군 (穴口郡)’의 고구려 때 이름은 ‘갑비고차(甲比古次)’이었다.

나. ‘혈구군 (穴口郡)’의 백제 때 이름은 ‘관미성 (關彌城)’이었다.

다. ‘혈구군 (穴口郡)’은 신라 경덕왕 때 ‘해구군 (海口郡)’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라. ‘혈구군 (穴口郡)’은 행정 단위에 대한 명칭이고, 그 지리적 명칭은 ‘혈구도 (穴口島)’이었다.

마. ‘해구군 (海口郡)’은 고려 때 ‘강화현 (江華縣)’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갑비고차 (甲比)’에 대한 해독은 이미 상당 부분 진전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우선 ‘갑비고차’에 대한 여러 해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 뒤에 ‘갑비’와 ‘고차’의 한자음을 기초로 하여 필자 나름대로 이들에 대한 고구려 어형을 재구하고자 한다. 이에 임흥빈 (2007)에서 제안된 ‘추상 재구형’을 설정, 적용함으로써, 알타이 어족 가설이 얼마나 뒷받침될 수 있는가를 검증하고자 한다.

3. ‘갑비(甲比)’에 대한 이전의 가설

3.1. ‘갑비(甲比)’에 대한 ‘구무’ 해독

이른 시기 ‘혈 (穴)’을 ‘굶’이나 ‘구무’로 읽은 것은 양주동 (1942, 1965: 274, 365)과 신태현 (1958)이다. 양주동 (1942, 1965)의 언급을 먼저 보이기로 한다.

(3) 양주동 (1942, 1965)의 ‘혈 (穴)’ 해석

가. ‘혈 (穴)’의 고어가 ‘굶’ 뿐임은 ‘혈구 (穴口)(甲比古次, 江華)’를 광개토왕비, 삼국사 구려기(三國史 句麗紀)에 ‘관미성(關彌城)’이라 기사한 것으로 알 수 있다.

나. ‘굶’은 저 ‘검(黑), •(女神)’ 등어(等語)와 동원어이다.

(3가)는 ‘혈 (穴)’에 해당하는 고어가 ‘굼’이란 형태뿐임을 말한 것이다. 이는 중세어에서 ‘구무’가 주격형 ‘굼기’ 대격형 ‘굼글’과 같이 변화하는 것과 달리 고어에서는 ‘굼’이나 ‘구무’와 같은 한 가지 형태만이 있었음을 지적한 것이다. 백제의 표기 ‘관미성 (關彌城)’의 ‘관미 (關彌)’도 ‘굼’ 또는 ‘구무’를 적은 것으로 본다. (3나)에서는 ‘굼’을 ‘검다, 검정’ 등의 ‘검’과도 어원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고, 여신을 뜻하는 ‘·’과도 어원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양주동(1942, 1965)의 해독은 문제의 어형이 고구려어를 적은 것이라는 인식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 흠이다.

신태현 (1958: 56)의 해독은 양주동 (1942, 1965)와 같으면서도 미묘한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신태현(1958)의 언급은 다음과 같다.

(4) 신태현 (1958)의 ‘갑비고차 (甲比古次)’ 해석

가. ‘혈 (穴)’의 훈 (訓)은 ‘굼’으로, ‘갑비 (甲比)’는 ‘굼’의 음차 (音借)이다. 이것은 ‘口-ㅂ’ 호전 (互轉)의 예로서, ‘갑 (甲)’으로 ‘굼’을 음차한 예도 있다. 예, 갑홀(甲忽)-혈성(穴城).

나. ‘혈구 (穴口)’는 ‘굼고지(곶)’[穴岬(혈갑)]를 적은 것이다.

(4가)는 ‘혈 (穴)’을 ‘굼’으로 읽은 것으로, 양주동(1942)의 ‘굼’ 해독과 차이가 없다. 양주동 (1942, 1965)와 신태현 (1958)에서 (4나)의 혈구 (穴口)는 ‘구멍의 입구’와 같이 해석된 것이 아니라, ‘굼고지’ 즉 혈갑 (穴岬)으로 해석된 것이다. 이는 ‘산 사이에 구멍이 난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여겨진다. 양주동 (1942)과 신태현 (1958)의 공통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기로 한다.

(5) 양주동 (1942)와 신태현(1958)의 ‘혈구(穴口)’ 해독

가. 양주동(1942)와 신태현 (1958)은 ‘혈구(穴口)’를 ‘굼고지’와 같이 해독하였다.

나. ‘굼고지’는 ‘산 사이에 구멍이 난 것’ 등과 같은 뜻으로 해독되었다.

양주동 (1942)이나 신태현 (1958)은 ‘갑비(甲比)’보다는 ‘혈 (穴)’에 주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갑비’의 특이성이 부각되지 않고 있다.

3.2. ‘갑비(甲比)’에 대한 /*kap/ 해독

‘갑비(甲比)’가 /*kapi/의 표기임을 분명히 하고, 그것이 고구려어를 반영한다는 인식을 명확하게 제시한 것은 이기문(1968)이다. 이기문(1968)의 관련 논의를 다른 알타이어와의 비교와 함께 다음과 같이 보이기로 한다.

(6) 이기문(1968: 126)에서의 ‘갑비고차(甲比古次)’

가. ‘갑 (甲)’은 ‘혈 (穴)’을 뜻하는 것으로 그 고구려 어형은 /*kap/이다.

나. ‘갑 (甲)’으로 표기된 /*kap/은 북부 방언형이고, ‘갑비(甲比)’로 표기된 /*kapi/는 남부 방언형이다.

다. ‘갑홀 (甲忽)’과 ‘갑비고차 (甲比古次)’의 비교에서 보아 ‘갑(甲)’은 어간 자체이고, ‘갑비 (甲比)’는 단순한 명사 어간이 아니라 다른 단어와의 결합을 위한 곡용형이다.

라. /*kap/은 일본어 /kafi/ ‘협(峽, 산골짜기)’, 고대토이गी어 /*kapiŋ/ ‘문(門)’과 비교된다.

마. ‘고차 (古次)’는 ‘홀차 (忽次)’로도 나타나는데, 현재의 강화도와 파주에 해당되는 곳에서는 ‘고차 (古次)’ 또는 ‘관(串, 곳)’으로 나타나지만, 현재의 시흥(始興), 양구(楊口) 등에 해당되는 곳에서는 ‘홀차 (忽次)’로 나타난다.

(6가)는 아주 중요한 인식의 변화를 보이는 것이다. 이기문(1968)에 의해서야 그것이 고구려어 /*kapi/를 적은 것으로 파악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에는 ‘갑 (匣)’이나 ‘갑비(甲比)’를 중세어의 ‘굶’이나 ‘구무’와 관련을 시키지 않은 문제가 있다. 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기로 한다.

(7) 이기문(1968)에서의 문제

이기문 (1968)에서는 ‘갑 (匣)’이나 ‘갑비 (甲比)’를 /*kap/으로 읽고, 그 의미를 ‘산협 (山峽)’으로 보았으나, ‘굶’이나 ‘구무’와의 관련이 부각되지 않고 있다.

宋敏 (1999: 184)에서도 ‘갑비고차(甲比古次)’와 ‘갑홀 (甲忽)’을 토대로 ‘혈 (穴)’에 대하여 /*kappi/나 /*kap/과 같은 어형을 재구하고, 그것을 고대일본어 /kaɸi< *kapi/와 비교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의 상대어 (上代語)에서 /*kaɸi/는 역시 ‘산협 (山峽)’을 나타내는 것이다.

3.3. ‘갑비(甲比)’에 대한 /*kupi/ 해독

‘갑비 (甲比)’가 ‘구무’와 비교될 수 있다는 것을 표면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이남덕(1985)이다. 이남덕 (1985)의 논의를 다음과 같이 보이기로 한다.

(8) 이남덕 (1985)에서의 ‘갑비 (甲比)’

가. ‘갑비’를 『삼국사기』에 기술된 그대로 ‘혈 (穴)’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나. 일본어의 /kaFi/는 /kap-/에 명사형성 접미사 /-i/가 결합한 것으로, /kap-/은 제주 방언 ‘·’과 같이 ‘경계선, 중간, 산협 (山峽, 골:)’을 뜻하는 것으로 본다. 어원적으로는 그것은 ‘나누다’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어근이 /kVp-(~kVm)/과 같다고 하더라도, 별개의 말로 보아야 한다.

다. ‘갑비(甲比)’는 ‘굽이’로 읽는 것이 옳다. 지형이 굴곡된 부분, 특히 강물이 구비친 곳을 가리키는 지명에 ‘구미 (九味), 구미 (九美), 구비(口非), 구비 (九非), 구배 (仇俳), 구미 (龜尾), 구미 (九尾)’ 등과 같은 것이 있기 때문이다. 강화가 해안선의 굴곡으로 ‘구비’로 불렸을 것이다.

(8)은 ‘갑비 (甲比)’를 일본어 /kafi/와 일치시킨 이기문 (1968)을 비판하고, ‘갑비’는 『삼국사기』에 기술된 대로 ‘혈 (穴)’의 의미로 보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나, ‘갑비 (甲比)’를 ‘굽이’로 본 데 그 한계가 있다. ‘굽이’는 강물이 굽이치는 곳이다. 이남덕(1985)은 ‘강화’가 해안선의 굴곡 때문에 ‘굽이’로 불렸을 것이란 추측에 이끌리고 있다. 이남덕(1985)에서 ‘갑비 (甲比)’는 ‘혈 (穴)’의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표방하였으나, (8다)는 ‘혈 (穴)’의 의미로 읽은 것이 아니다.

3.4. ‘갑비(甲比)’에 대한 /*kol/ 및 /*kul/ 해독

이정룡(2002), Beckwith (2004), 최남희 (2005) 등에서는 ‘갑비 (甲比)’를 /*kol/이나 /*kul/을 뜻하는 단어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의 논의는 ‘갑비 (甲比)’를 ‘굴 (窟)’이나 ‘동굴’로 해석하는 것인데, ‘강화도’와의 관련을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결함이다.

이정룡 (2002)는 ‘등가성’의 원리를 중시하였다. ‘혈 (穴)’이 ‘갑비 (甲比)’와 등가이고, ‘압 (押)’이 ‘혈 (穴)’이나 ‘관 (管)’과 등가이며, ‘갑 (岬)’이 ‘고지(古尸)’와 등가라는 사실을 중시하여 ‘*·’과 같은 재구형을 도출하고, ‘*·’과 같은 재구형에서 받침 ‘ㅂ’이 탈락하면 /*골/이 되고, 받침 중 ‘ㄹ’이 탈락하면 /*갑/이 되는 것으로 보았다. ‘등가성’의 원리는

(10가, 나)와 같은 기록에 나타나는 이표기를 동일한 대상의 표기로 보는 것을 말한다.

(9) 가. /*갑/: [갑비(甲比)…압(押)…갑(岬)]

나. /*골/: [혈(穴)…관(管)…악(嶽)…고시(古尸)]

‘등가성’의 원리를 따라가다 보면 ‘갑비’가 ‘산악(山嶽)’으로도 해석되게 된다. 그러나 강화도를 어떻게 산악으로 볼 수 있는가?

‘혈구(穴口)’의 ‘혈(穴)’을 ‘동굴’로 해석한 것이 Beckwith(2004: 71)이다. 정광 역 (2006: 147)의 번역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10) Beckwith (2004)의 ‘혈구(穴口)’ 해석

혈구군 (穴口郡) ‘동굴 입구 군’은 *kaipkvtsi ~ *kaippkvtsi [甲比古次]로 주석되어 있다 (『삼국사기』 권35/362, 권37/379). 또 다른 지명에서 입증된 *kaip ~ *kaippi ‘동굴, 땅굴, 굴(산에 있는)’은 단어 *kvtsi [古次] ‘입’과 같은 좋은 일본어의 동원어형이 있다.

(10)은 Beckwith(2004)가 ‘혈구(穴口)’의 ‘혈(穴)’을 ‘굴, 동굴’과 같은 것으로 해독하였음을 보인 것이다. Beckwith(2007)에서도 고대고구려어의 /*kaip/에 해당하는 중세한국어형을 ‘굴(窟)’로 대응시키고 있다. 분명 ‘굴’도 구멍의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강화도를 어떻게 ‘굴’이라고 할 수 있는가? 강화도는 분명 ‘굴’로 유명한 섬이 아니다.

최남희(2005: 157-8)에서도 ‘갑비(甲比)’를 고구려어 /*kapi/의 음차로 보았다. ‘혈성(穴城)’을 ‘갑홀(甲忽)’이라고도 하였으므로, ‘갑비(甲比)’를 /*kapV/과 같은 형식으로 재구하였다. 그 의미를 ‘동굴(洞窟)’이나 ‘강(江)’으로 보았다. 이에는 강화도가 섬이라는 사실이 고려되었다. 그러나 강화도 주변에 바다가 있는 것이지 어떻게 강화도 자체를 강이라고 할 수 있는가?

4. ‘갑비(甲比)’의 어형과 의미

4.1. ‘갑비(甲比)’의 어형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갑비고차(甲比古次)’의 ‘갑비(甲比)’를 이기문(1968)에서는 /*kapi/를 적은 것으로 보았고 ‘갑(甲)’은 /*kap/을 적은 것으로 보았다. 이 점은 宋敏(1999: 184)에서도 거의 같다.

‘갑비’를 /*kappi/로, ‘갑(甲)’을 /*kap/과 같이 보았다. 그러나 ‘갑비(甲比)’와 ‘갑(甲)’을 달리 재구하면 왜 동일한 단어에 대하여 두 가지 어형이 있게 되는가에 대하여 해명이 필요하게 된다. 여기에 제안된 한 가지 해석이 방언형 해석이다. (6나)에 의하면, /*kap/은 북부 방언형이고, /*kapi/는 남부 방언형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다른 해석이 더 있다. 그것은 (6다)의 결합형 해석이다. (6나)와 (6다) 중에서는 분명히 어느 것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방언 해석에 있어서는 방언 경계 부분에 대한 문제도 제기된다.

우선은 ‘갑비 (甲比)’와 ‘갑 (甲)’을 동일 어형을 적은 것으로 보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 주의를 돌릴 필요가 있다. 고구려어에서 ‘갑(甲)’의 /ɬ/이 현대에서처럼 내파 (內破)되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외파 (外破)되기도 하였다고 볼 가능성 있는 것이다. 외파 (外破)되었다고도 볼 경우 ‘ɬ’이 어떤 종류의 모음과 함께 발음되었다고 보는 것은 자연스럽다. 현대에서라면 /ɬ/와 함께 발음되었을 것이지만, 중세어라면 /i/와 함께 발음되었을 것이다.

둘째, (6다)는 /*kapi/ 형식을 조사를 가진 형식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중세어의 ‘구무’가 ‘굼기, 굼글, 굼괴, 굼괴셔’ 등과 같이 이른바 k-곡용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혈성(穴城)’을 나타내는 ‘갑홀(甲忽)’의 ‘갑(甲)’도 결합 환경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갑홀(甲忽)’에서는 결합형이 쓰이지 않고 ‘갑비고차 (甲比古次)’에서만 ‘갑비(甲比)’와 같은 결합형이 쓰였다고 보기 어렵다.

본고는 ‘갑비 (甲比)’의 고구려어 어형을, 중세어형 /kumu/를 고려하여 /*kapi/로 재구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보이기로 한다.

(11) ‘갑비 (甲比)’의 고구려어 어형

고구려 지명 표기에 나타나는 ‘갑비 (甲比)’와 ‘갑 (甲)’은 그 어말 자음이 외파되었던 것으로 보아 다같이 /*kapi/로 재구한다.

이러한 가정은 ‘혈 (穴)’에 관한 고구려어 음절을 개음절로 보는 데 기초한다. ‘갑’을 /kap/으로 재구한다고 하더라도 [kabi]와 같이 발음되었을 것이므로, /*kapi/형의 가정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이는 중세어의 /kumu/형을 염두에 둔 것이다.

4.2. 지명에서 ‘갑비 (甲比)’가 의미하는 것

‘등가성의 원리’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예들을 다음과 같이 보이기로 한다.